



# 한반도 화해 분위기 타고 북한 관련 책 인기

상반기 판매량 지난해 8배  
태영호 회고록, '선을 넘어...' 등  
올 신간 베스트셀러 반열에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로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북한 관련 도서를 찾는 독자들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참가에 이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같은 '북한 특수 현상' 기저에는 북한의 일상을 알고 싶은 생각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24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6월 10일까지 집계된 북한 관련 도서 판매량은 약 3만권으로 동기간 대비 8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 간의 판매량 가운데 역대 최고치이자 3년 간 판매량 합계를 육박한 수치다. 2018년 출간 중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약 16권 늘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타진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예고 없이 진행된 2차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5월(2만2620권) 한달 간 판매

량이 전월(11600권) 대비 약 19.5배 급증하며 북한 도서 판매량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관련 도서를 구매한 독자는 남부 6대 4 비율로 남부 독자 비율이 높았고 연령층은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고르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회고록 '3층 서기실의 암호'는 지난 5월 출간된 후 3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태영호 전 공사의 이 책은 세계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3층 서기실'은 북한 주민들도 잘 모르는 조직으로, 3층 규모 건물 전체를 쓰고 있어 유래했다. 한마디로 김정일의 사업을 가장 근접해서 보좌하는 부서를 일컫는다.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다.

저자는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태 공사가 들려주는 평양 심장부 이야기, 북한의 대외정책 기초 등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들려준다.

이밖에 2018년 북한 관련 베스트셀러에 '선을 넘어 생각한다', '조난자들', '70년의 대화' 등 신간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쓴 '통일을 보는 눈',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납북 주재원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엮은 '개성공단 사람들', 법륜스님과 오연호 기자가 통일의 필요성을 제시한 '새로운 100년' 등 오래 전 출간된 도서들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 박한식 박사와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가 펴낸 '선을 넘어 생각한다'는 북미관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구를 사귀려면 자주 만나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를 알아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답잖은 수다를 떠는 것도 우정을 돈독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처음에는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만들려면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층 서기실의 암호'와 '선을 넘어 생각한다'는 교보문고 판매량 집계에서도 1위와 2위에 오를 만큼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특히 북한 관련 도서는 5개년(2014~

2018년) 4월까지의 평균 판매량이 7000~8000권이었던 반면 올해 4만1600권으로 대폭 늘었다. 이밖에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70년의 대화',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등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북한의 대표 작가 백남룡의 베스트소설 '뱃'도 올해 국내서 출간돼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소설은 예술단 여가수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통해 북한의 사랑과 결혼, 이혼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렸다. 특히 상투적인 소설에 식상해 있던 북한 독자들에게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스테디셀러가 됐다.

특히 '뱃'은 2011년 프랑스어로 번역돼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코리아 소설'로 꼽혔다. 프랑스에서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문'이라는 평을 받았다.

지난 2017년 북한에 대한 관심이 거론될 정도로 북미관계가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코리아 판타지'도 화제가 됐던 소설이다. 민혜숙 작가와 노치준 목사 부부의 합작 소설은 책 위기가 고조되던 어느 날 북한 미사일이 하와이 미국 영해에 떨어지는 가상 상황을 그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대식 옹관 만들어 볼까



18~22일 나주문화재단연구소  
무료 체험자 50명 선착순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 유역에 펼쳐진 나주평야는 고대부터 지배세력의 중요한 터전이었다. 이들이 남긴 여러 유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옹관이다. 항아리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독널 또는 독무덤이라고 불린다. 고대 방식 그대로 옹관을 만들어보는 체험이 열려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단연구소(소장 박종익)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연구소 내 옹관제작공방에서 1차 '대형 옹관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타임캡슐 옹관 만들기 추억 담기'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체험에서 참가자들은 2m 높이에 이르는 대형옹관을 제작하거나 참관한다. 또한 별도로 고대 제작기술을 활용해 소형옹관을 만들고,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

어 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1차 프로그램인 '타임캡슐 옹관 만들기'에서는 '옹관 배우기', '대형옹관 제작과정 체험', '타임캡슐 미니옹관 만들기' 과정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체험한다.

2차 프로그램인 '타임캡슐 옹관 추억담기'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연구소에서 펼쳐진다. '옹관 가마에 대형 옹관 넣기', '옹관 가마 불때기 체험', '타임캡슐 미니옹관 추억담기', '타임캡슐 미니옹관 묻기'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행사는 개인 또는 단체 참가자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체험일 이를 전까지 국립나주문화재단 연구소 누리집(nrich.go.kr/naju,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거나 전화(061-339-1125/1138) 또는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지난해 진행된 미디어교육 모습.

<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 미디어 타고 흐르는 화순 이야기

광주시청자센터 화순 교육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는 12일부터 화순 군민을 대상으로 '화기에 미디어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군민 미디어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2016년부터 화순군과 함께 진행 중이다.

올해는 군민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영상편지를 제작해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와 SNS로 소통하는 '올 엄마가 보내는 영상편지', 이주 여성의 삶과 일상을 라디오에 풀어내는 '다문화가정 라디오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방송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 단위로 진행되는 정감 있는 소식과 옛이야기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뉴스 영상과 라디오로 제작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프로그램인 '농촌뉴스 만들기'와 '동네방네 마을 라디오'도 운영한다.

또 마을 특산물부터 무형문화재(장인), 고인돌 체험 등 화순을 주제로 홍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화순 체험 테마, 뮤직비디오에 담다'가 운영된다. 이 밖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마을 한 곳을 선정해 마을의 역사와 문화, 교명자들의 생애사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마을회관에 전시하는 '우리 동네 미디어 역사관' 등 미디어 아카이브 사업도 진행 한다.

문의 062-650-03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천사들의 합창으로 꾸미는 '광장음악회'

16일 광주 물빛근린공원

제85회 광장음악회 '꿈을 꾸는 음악'이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물빛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정찬경의 진행으로 시작하는 이번 공연은 CBS소년소녀합창단의 '바람의 멜로디', '평화의 샘', '경의선 타고'로 문을 연다.

이어 장일남의 '비목', 쿠르티스의 '날 잊지 말아요', 엘딘 버튼의 '플루트 소나타', 모차르트의 '론도 알라 투르카' 등을 선보인다.

또 로시니의 '고양이 2중창', 이영조의 '엄마의 누나야', 김성태의 '동심초', 쉘튼의 '더기 행진곡', 신상우의 '향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를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무대는버터필드의 '메기의 추억'을 함께 부르며 마무리한다.

이번 공연에는 CBS소년소녀합창단, 플루트 앙상블 PreSo Flutes(김여령·박서영·박서운·문예주), 소프라노 임영인,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피아노 이우정 등이 출연한다. 문의 010-2038-362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 2016년 호남예술제 입상자들의 '광장음악회' 공연 모습.

**예향의 미래, 유네스코 세계 유산**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예향의 미래, 유네스코 세계 유산**

- 유네스코 문화 자연 유산은 매력적 글로벌 브랜드
-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보고, 동유럽을 가다

화제의 전시-공연

ACC, 리얼리즘 미술 & 영상전  
**폭력과 저항, 전쟁과 평화를 보는 예술의 시선**

화제의 공연

열정과 기량, 매력적 무대 매너  
**'앙상블 디토' 공연**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②  
**그루지아의 기아 칸첼리 & 에스토니아의 아보 파트**

노중훈의 꿈의 여행②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한 명주를 만나다  
**일본 간사이 사계 여행**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발굴②  
도쿄의 '핫플'이 된 서점들  
책 & 라이프 스타일 파는  
**도쿄 츠타야 서점**

**예향 초대석**

**40여년간 분단현실 그려온 화가 송창**  
"미학과 시대정신 함께 갈 수 있어요"

광주폴리다시보기⑤-1차 폴리 명과 암  
공간의 적정성, 소통 여부가 만든  
사랑스런 폴리 & 거주장스런 폴리

문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⑧  
한국비평문학사 발자국 남긴  
평론가 김환태

트렌드 따라잡기⑥  
위장에 행복 채우기 위해  
검색하고, 기다리고...  
밀레니얼의 식사법

전시 리뷰 <오일 - Zero(無) 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예향이 만난 이사람  
개그맨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한 **고명한**  
KBO리그 최고령 세이브 기록 KIA 만형 **임창용**  
광주독립영화관GIFT **관장 윤수안**

철과 빛, 문화가 반짝이는  
매력도시 **광양 羅光陽**

- 메탈아트 봉수대, 도시 절경 만끽  
- 깊은 숲과 계곡 따라 치유여행